

## 고대와 중세가 공존하는 이탈리아 도시방문기



[그림 16] 산마르코성당과 두칼레 궁로



[그림 17] 무라노 섬 전경

## 마치며

로마에서 베네치아까지 6개의 도시를 이해하기에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 150년 전 이탈리아 도시들은 독립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 정치사회적제도, 경제조건, 사회구성 형태 등에서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이 및 지역감등은 통일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탈리아 사회에 잔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학자들은 이러한 지역문제를 '남부 문제'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지역격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문했던 이탈리아 도시들은 로마와 중세시대 역사문화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도시전체가 거대한 역사박물관인 로마,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운 예술의 도시 피렌체, 중세에 와 있는 듯한 슬로시티 오르비에토, 포르티코와 협동조합의 도시 볼로냐, 줄리엣과 오페라의 도시 볼로냐, 물·운하·유리·카니발의 도시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도시들의 공통점은 조상이 남긴 역사문화자산을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의 도시들도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며 새롭게 창조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탈리아가 세계관광대국인 이유는 역사문화유산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역사문화유산이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 '남부문제'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북부에 상대되는 지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는 자유롭고 현대적이며 산업화된 북부와 대조되는, 봉건적이고 농업 중심적인 남부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 해외리포트

### 물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 베네치아

아드리아해 베네치아 만(灣)에 입지한 베네치아는 영어로 베니스(Venice)라고 하며, 2009년 현재 27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공섬으로 이중 역사도심지구(젠트리스트리코, Centro storico)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6만명에 달한다. 베네치아는 석호(潟湖라군) 위에 흩어져 있는 118개의 섬들을 약 400개의 다리로 연결하고 있다.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3.8km의 S자형 대운하를 중심으로 싹틔줄 같은 수로가 연결되어 중요교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 형태는 이미 13세기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림 15] 하늘에서 본 베네치아 시가지

10세기말에 이탈리아 자유도시들 중 가장 부강한 도시로 성장하였고, 14~15세기 초에 해상무역공화국으로서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인 북부평야를 배후지로 하는 항구도시로 발전하여 '물의 도시'라고 부른다.

베네치아는 바다 속 점토질 바닥에 나무를 묻고 석회암과 대리석을 얹어 만든 인공기반 위에 건설된 도시로 근래 들어 지반이 급격히 침하되고 있으며, 석호의 오염이 사회적인

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면서 지반 침하를 막으려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몇몇 교회의 침탑 등은 지반침하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베네치아에는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극찬한 산마르코광장을 비롯하여, 산마르코대성당, 두칼레 궁, 산타마리아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성당, 리알토 다리, 종탑 등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본섬 북쪽에 위치한 무라노섬에서는 13세기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라노(Murano) 유리공예 작업현장과 유리박물관을 볼 수 있다.

매년 9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산타루치아 역과 산 마르코광장으로 이어지는 대운하에서 곤돌라 경주를 하는 레가타 스토리카(Regata Storica)가 개최되며, 1934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기도 하다. 무엇보다 매년 2월중 13일간 세계 3대축제 중의 하나인 베네치아 카니발(Venezia Carnival)을 빼놓을 수 없다. 산마르코광장을 중심으로 가면과 의상대회, 무료 거리공연, 화려한 가면의상 퍼레이드, 콘서트, 살아있는 역사의 재현, 어린이 엔터테인먼트, 열정적 밤샘댄싱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 줄리엣과 오페라의 도시, 베로나(Verona)

베로나는 작지만 아름답고 깨끗한 국제적 역사문화관광도시이다. 줄리엣의 집, 아레나와 오페라, 시뇨리와 에르베 광장, 카스텔베키오 미술관, 스칼리제로 다리, 아디제 강, 로마노극장 등 비교적 볼거리도 많은 도시이다. 특히, 줄리엣의 집을 찾는 방문객이 연간 6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베로나는 줄리엣으로 먹고 사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도시전체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붉은 벽돌의 도시, 로마시대 역사유적, 오페라 등을 관광상품화하고 있다.



[그림 13] 아레나 원형경기장



[그림 14] 줄리엣의 집과 동상

또한, 로마시대에 건설된 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오페라 축제는 매년 7월과 8월 동안 거의 매일 동안 개최되고 있다. '아이다', '투란도트', '카르멘', '토스카' 등 이탈리아 대형 오페라작품이 주로 공연되는 이 시기에는 베로나 시내에 호텔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베로나를 찾는다고 한다.

베로나에는 줄리엣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리엣의 집과 무덤을 만들고 원형극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세레나데를 공연한다. 즉, 실체 없는 줄리엣을 활용하여 도시문화를 만들고 도시마케팅을 끊임없이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역사문화도시로 이미지화에 성공하고 있다. 베로나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은 35년된 로미오 동상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영원한 사랑을 얻기를 희망한다.

아레나에서 줄리엣의 집과 에르베 광장을 가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조성된 마찌니 거리를 거쳐야 한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거리를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의류, 가방 등의 쇼핑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공간구조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베로나는 문화예술도시로 오페라와 같은 콘텐츠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인하여, 마찌니 거리를 비롯한 상가에서 돈을 쓰게 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도시이다.

## 해외리포트

학하고 있다.

볼로나는 2000년 유럽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로, 2006년 유네스코 음악 분야 창조도시(UNESCO Creative City for Music)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창조도시 볼로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다양한 형태의 포르티코(portico)

첫째, 4계절 편안히 걸을 수 있는 아치형의 독특한 회랑인 '포르티코(portico · 주랑 · 柱廊)'가 시내 모든 건물들을 연결하고 있는 볼로나만의 아름다운 거리를 구성하고 있다.

둘째, 도심 공동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재생전략을 수립하고, 뒷골목 구석구석에 개성 있는 예술공방형 기업들이 있다.

셋째,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한 '볼로나 2000 프로젝트'는 도심 건축물의 외관은 보존하되 내부는 첨단 문화공간으로 바꾸었다.

넷째, 협동조합경제의 비율이 45%를 차지할 정도로 협동조합이 발달해 있다. 볼로나에서는 농민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여러 협동조합 형태를 볼 수 있다.

다섯째, 2006년 유네스코에서 음악 분야 창조도시로 지정한 음악의 도시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볼로나는 이탈리아에서 삶의 질이 높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 고대와 중세가 공존하는 이탈리아 도시방문기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렌체를 “꽃의 도시(체타 델 피오레)”로 부르고 영어로는 플로렌스(Florence)라고 한다. 로마 북서쪽 233km에 위치한 피렌체는 도시중심으로 흐르는 아르노강 양안 구릉과 선상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14~15세기 메디치가의 찬란한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운 단테의 고향이자 인본주의와 예술이 화려하게 꽃피운 도시이다.

피렌체의 랜드마크는 단연 두오모이다. 당시 많은 재산을 축적했던 피렌체 상인들이 돈은 모아 1292년에 착공하여 1436년에 완공하였으며 정식명칭은 바실리카타 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이다. 바닥에서 높이 106m에 달하는 역사상 최초의 팔각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재 돔으로 무게만 37,000톤이고 4백만개 이상의 벽돌이 사용되어 16년만에 완공되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주도인 피렌체는 단테, 보카치오, 미켈란젤로, 지오토,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세계적 유명예술가들의 걸작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 예술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아르노강과 텐테 베기오 ©이탈리아관광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피렌체 역사지구는 사방 1km밖에 안되는 협소한 구역이지만, 시가지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가득 차 있다.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두오모 이외에, 두오모 종탑, 산조반니 세례당(천국의 문), 메디치궁(우피치미술관), 베키오 궁전, 아카데미아 미술관, 폰테 베키오, 단테의 생가, 산 로렌초 성당, 산타크로체 성

당, 산타마리아 노벨라성당 등을 들 수 있다.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바라본 피렌체는 아르노 강과, 폰테 베기오, 두오모, 베키오 궁전이 어울려 이름 그대로 붉은 꽃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 포르티코와 협동조합의 도시, 볼로냐(Bologna)

볼로냐는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주(州)의 주도(州都)로 인구 3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 문화가 풍부한 도시이다. 볼로냐는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중심지이고, 학문의 도시, 비만의 도시, 탑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 도시 전체가 붉은 색으로 된 건물과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르티코(portico)가 볼로냐를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고 있다. 볼로냐에는 1088년에 서양 최초로 설립된 볼로냐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현재 23개 학부에 약 9만 명이 재

## 해외리포트

오르비에또에서는 새로 지어진 건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바람통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규 건축을 되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오르비에또는 유럽 슬로시티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슬로시티운동은 1999년 10월 그레베시, 오르비에또, 브라, 포시타노 등 작은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세계를 향해 느리게 살자고 호소한데서부터 출발했다.



[그림 9] 뒷골목 모습

슬로시티의 상징물은 마을을 이고 가는 달팽이다. 느리게 먹기와 느리게 살기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빨리 만든 음식이 아닌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맛, 후다닥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음미하며 먹는 음식. 그냥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음미하고 되씹어서 인생과 삶의 의미를 깊게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생활을 말한다. 걷기 열풍도 느림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적 풍요와 물질적 만족만을 쫓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느림의 철학이다

오르비에또에서는 전통과 먹거리의 유지를 슬로시티의 모토로 운영하고 있다. 즉, 움부르리아주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사용하고 도시내 차량 통제가 특징이다. 물론 우리가 방문했을 시점이 폭설 이후라 차량통행을 일부 허용하고 있었다.

## 아름다운 꽃의 도시, 피렌체(Firenze)



[그림 10] 미켈란젤로광장에서 바라본 피렌체 역사도심지구

## 고대와 중세가 공존하는 이탈리아 도시방문기



[그림 6] 콜로세움

경관계획에서는 광역적 경관계획과 조망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계획, 건축물에서는 건축물군의 형태보존, 건축물군의 보존, 건축물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고도보존을 추진하고 있다.

로마에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안내판은 광장(Piazza)인 것처럼, 로마는 광장과 분수의 도시이다. 이와 같이 로마에 유무형의 광장과 분수가 발달하게 된 것은 정치·역사성, 국민성, 기후 등과 밀접한 관

련성이 있다고 한다.

로마는 문화유적을 통한 도시이미지 형성과 관광산업화에 성공한 도시이다.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부의 노력,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로마를 매년 1,0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도시로 성공시킨 요인인 것이다.

## 슬로푸드와 슬로시티, 오르비에또(Orvieto)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에 위치한 오르비에또는 로마에서 북서쪽으로 96km 떨어진 해발고도 195m의 바위산 위에 위치한 중세모습을 간직한 도시이다.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2km 정도가 전부인 작은 도시이지만 전체주민이 2만 명에 달한다. BC600년에 에트루리아인이 건설하였고, BC264년 로마의 도시가 되었다. 주변 비옥한 농업지대의 유통·산업·관광의 중심지이고 백포도주가 유명하다. 1290년에 착공되어 300년에 걸쳐 세워진 오르비에또 두오모는 이탈리아 고딕건축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이외에도 포폴로광장의 파팔궁전, 성페트릭의 우물, 국립고고학 박물관 등의 유적이 대표적이다.



[그림 7] 오르비에또 전경



[그림 8] 오르비에또 대성당



## 해외리포트



[그림 4] 원형극장

서 결국 쇠퇴하게 된 도시이다. 로마시대 도로, 고대 신전, 가옥, 극장, 카페, 주방, 시장 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인구 10만 이상이 거주했던 고대 도시로 적어도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볼 수 있는 정도로 그 면적만 34ha에 달한다고 한다.

## 고대와 중세가 공존하는 영원의 도시, 로마(Rome)

테베레(Tevere) 강과 더불어 성장한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원의 도시’이다. 로마는 일찍이 로마시대부터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시대를 지나면서 유럽문명의 발상지로 발전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격언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역사적 유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이다. 또한 고대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육지, 수상교통의 중심지로 로마를 기점으로 이탈리아의 모든 교통이 발달되어 있다.

로마시대에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의 유적이 중첩되어 있는 로마시는 지하철이 2개 노선에 불과하고, 구 중심가에는 육교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곽 4차선 준고속도로가 2차선으로 좁아지거나 우회도로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도시계획, 경관계획, 건축물 등 개별계획을 통해 고도보존을 추진하고 있다. 1967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에서는 도시마스터플랜에 역사도심지구(젠트리스트리코, centro storico)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면적으로 보존하는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역사도심지구(A지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고, 다른 지구보다 우선적으로 만들고 재개발수법이 상세하여 유형별로 분류되고 제한 항목을 지자체별로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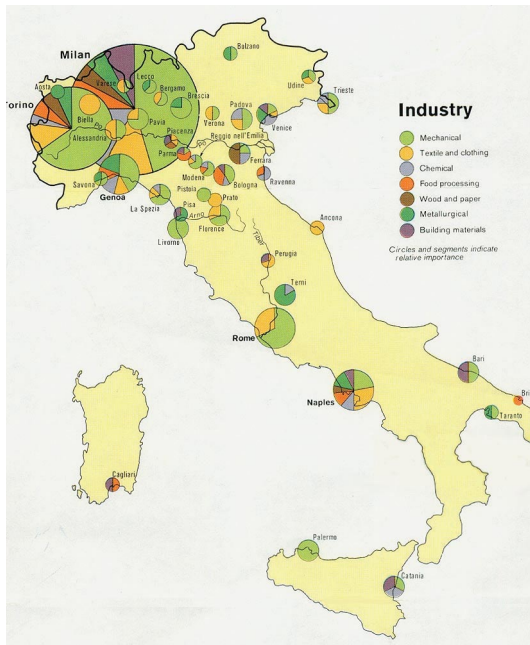


[그림 5] 바티칸 전경

이와 같이 로마는 구시가지 및 도심이 역사도심지구로 지정되어 함부로 개발을 할 수 없게 하고, 보존과 계획을 잘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로마 외곽 신개발지에 개발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 고대와 중세가 공존하는 이탈리아 도시방문기



[그림 1] 이탈리아 산업지도

출처 : <http://www.italy-map.info/> (2012년 2월 20일 접속)

[그림 2] 이탈리아 교통지도

## 고대 로마의 항구도시, 오스티아 안티카(Ostia Antica)



[그림 3] 오스티아 안티카 도시안내도

로마를 휘감아 도는 테베레강 하구, 후미치노 공항(Fumicino, 레 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인근에는 오스티아 안티카라는 한적한 로마 시대 도시를 만날 수 있다. 입구에 서부터 화산석이 깔린 약2km의 도로 양 옆으로 조성된 도시는 우산 모양의 잘 정리된 소나무 가로수와 함께 고대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폭격맞은 로마시대 도시를 보는 듯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을 하고 있다.

오스티아 안티카는 BC 4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번성했던 도시로 로마제국의 교역 및 상업 항구도시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하안의 변화에 따른 다른 항구도시가 개발되고, 말라리아가 퍼지면

## 해외리포트

〈표 1〉 국가별 해외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해외관광객수(백만명)				관광수입(십억원,US\$)			
순 위	2009	2010	증감률(%) (09-10)	순 위	2009	2010	증감률(%) (09-10)
1. 프랑스	76.8	76.8	0.0	1. 미국	94.2	103.5	9.9
2. 미국	55.0	59.7	8.7	2. 스페인	53.2	52.5	-1.2
3. 중국	50.9	55.7	9.4	3. 프랑스	49.4	46.3	-6.2
4. 스페인	52.2	52.7	1.0	4. 중국	39.7	45.8	15.5
5. 이탈리아	43.2	43.6	0.9	5. 이탈리아	40.2	38.8	-3.6
6. 영국	28.2	28.1	-0.2	6. 독일	34.6	34.7	0.1
7. 터키	25.5	27.0	5.9	7. 영국	30.1	30.4	0.8
8. 독일	24.2	26.9	10.9	8. 오스트레일리아	25.4	30.1	18.6
9. 말레이시아	23.6	24.6	3.9	9. 홍콩	16.4	23.0	39.5
10. 멕시코	21.5	22.4	4.4	10. 터키	21.3	20.8	-2.1

출처 : UNWTO, Tourism Highlights, 2011 Edition, p.6.

##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나라

이탈리아는 반도국가로 남북간에는 다양한 기후와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북부지역중심의 인구구조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은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토불균형발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870년 통일되어 150년이 경과하였지만, 중북부지역은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지역갈등의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탈리아 남부지역은 전 국토 면적의 40%, 인구는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중북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인구 비중은 중북부의 2배 정도인 반면, 제조업인구비중은 1/2에 미치지 못하며 제조업 노동생산성도 중북부에 비해 떨어진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는 지역적으로 산업화된 북부와 농업위주의 남부라는 이중구조와 남부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산업화된 지역과 저발전 지역이 혼재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제잠재력이 중화학, 경공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적으로 발달되었고, 인구의 지방분산, 지방자치제 확립, 교통망의 정비 등으로 소도시 및 농촌까지 경제활동이 활발하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중소기업이 건실하여 국가 기반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세계시장점유율 1위 제품을 300여개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 위주의 소위 명품기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리노와 밀라노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기계 및 패션산업이 발달하고, 철도 및 도로망 등 육상교통망 역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해외리포트

### 고대와 중세가 공존하는 이탈리아 도시 방문기



송두범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공주고도육성포럼(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주관)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였다. 서양문명을 대표하는 고대 로마문화의 중심지인 로마를 시작으로 오스티아 안티카, 오르비에토, 피렌체, 볼로냐, 베로나, 베네치아까지 많은 도시들을 돌아보았다. 고도육성(古都育成)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답사였지만, 이 글에서는 이탈리아 도시들이 지닌 독특한 개성을 살펴보고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세계적 관광대국 이탈리아

세계관광기구(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10년 해외관광객 수 4천 3백만명, 관광수입 388억불로 각각 세계5위권의 관광대국이다. 동 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관광객수 880만명, 관광수입 98억불과 비교해 보면 관광객수는 4.9배, 관광수입은 4.0배에 달할 정도로 관광규모가 막대하다.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약 5,800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이탈리아는 남북으로 긴 반도국기로 로마시대 풍부한 역사유적과 패션 및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다.